부동산 침체에도 광주 아파트 30평형대가 8억·10억

고분양가에 '내집 마련' 막막…청약 실수요 무주택자들 좌절
광주 분양가 전국 상위권에도 분양성공…상승세 이어질까 우려

"7~8억원이 말이 되나요? 요즘 광주에서 아파트 분양만 했다고 하면 30평대가 8억원에 달하네요. 여기가 서울도 아니고 해도 너무합니다."

광주에서 직장을 다니는 김모(여·29)씨는 최근 청약을 넣으려다가 분양가를 보고 좌절했다고 한다. 눈여겨 봐왔던 '교대역 모아엘가 그랑데'가 분양에 나서자 청약을 넣기로 마음 먹었지만, 전용 84㎡(32평) 분양가가 6억8000만원에서 7억1000만원 선이었다. 확장과 옵션 등을 포함하면 7억5000만원 정도란 얘기다.

김씨는 "4년 전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84㎡ 규모 아파트 분양가가 4억원 초반이었다"며 "그때도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느꼈는데, 지금은 기본 7억원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가 자체가 이렇게 높으면 내 집은 언제 마련할 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결혼했다는 안모(35)씨도 높은 분양가에 집을 살 엄두가 나질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얼마 전 '평당 3000만원'이었던 '상무센트럴자이'가 고분양가 논란 속에서도 분양에 성공하면서 상실감도 커졌다고 토로했다.

안씨는 "3~4년 전만 해도 청약은 신혼부부 같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삼는 중요 수단이었다"며 "지금은 25평대 아파트가 5억원을 넘어서는 등 도저히 새 집을 살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광주에서 분양에 나선 아파트 단지들의 분양가가 크게 오르면서 청약 실수요자들이 좌절하고 있다. 여기에 여전히 높은 금리로 부담이 가중되면서 '청약=로또'라는 말이 무색해지는 등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당 489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37만5000원에 비해 11.77%(51만5000원) 올랐다.

반면 광주의 평균 분양가격은 지난해 ㎡당 454만3000원에서 올해 550만8000원으로 무려 21.24%(96만5000원)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평당(3.3㎡) 분양가로 계산하면 1499만1900원에서 1817만6400원으로 1년 사이 318만4500원이 오른 셈이다.

특히 광주의 분양가는 5대 광역시와 세종시를 포함해 6개 도시 중 부산(㎡당 608만9000원)에 이어 두 번째로 비쌌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비교해서는 서울(941만4000원), 제주(719만4000원), 부산, 경기(580만7000원)에 이어 5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최근 광주의 분양가가 경기도와 비슷한 수준까지 오르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최근 분양에 나선 단지들이 고분양가 논란 속에서도 성공적인 분양 성적을 거둠에 따라 향후 광주지역 청약시장에서 분양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평당 3000만원'으로 분양에 나섰던 상무센트럴자이가 1순위 청약에서 평균 11.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평당 2200만원' 수준인 '교대역 모아엘가 그랑데'도 1순위 청약에서 평균 12.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높은 분양가로 청약에 실패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음에도 좋은 실적을 거두면서 앞으로 분양에 나설 아파트들이 고분양가 정책을 펴나갈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설명이다.

광주의 한 시행사 관계자는 "최악의 분양경기로 분양 시기를 조율해오던 광주지역 아파트 단지들이 최근 두 아파트의 분양 결과를 예의주시해왔던 게 사실이다"며 "고분양가에도 분양이 성공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앞으로 시행·분양사들도 분양가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사랑의 김치 나눔 15일 동곡농협 '사랑의 열무김치 나눔 행사'에 참여한 동곡농협 관계자와 부녀회 회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박병철 대한전문건설협 광주시회장 철탑산업훈장

'2023년 건설의 날' 기념행사
건설산업 제도개선 강화 공로

박병철〈사진〉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 회장(㈜동림에이스 대표이사)이 15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주최로 열린 '2023년 건설의 날' 기념행사에서 국가경쟁력 향상 및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로부터 철탑산업훈장을 받았다.

박 회장은 2003년 동림에이스를 설립하고 20년째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면서 모범적인 기업운영과 투철한 장인정신으로 공사품질을 향상 시켜왔다. 또 굵직한 공공사업 및 국책사업에 적극 참여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온 점과 건설산업 발전 등 국위선양에 기여하고, 전문건설 발주 확대 등 건설산업 제도개선 강화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2020년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 회장에 취임해 회원의 화합과 수주물량 확대에 나서 지난해 기준 회원사 기성액이 3조3400억원을 돌파하는 등 매출 신장률 전국 1위를 달성해 광주시회 창립 이후 최고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다.

박병철 회장은 "건설 현장 최일선에서 땀 흘리는 협회 회원들과 회사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에 큰 상을 받았다"며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전문건설업과 국가건설산업은 물론,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기업인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동곡농협, 열무김치 나눔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 전달

동곡농협은 15일 부녀회 회원들과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열무김치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농산물 소비촉진과 고령 농업인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고성신 농협 광주본부장, 이동운 조합장, 동곡농협 내부 조직장 등 70여명이 참여했다.

동곡농협 부녀회 회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미리 구입한 열무 120단을 비롯한 재료 손질에 이어 열무김치 담그기까지 진행했다. 동곡농협 임직원은 홀몸어르신 등 취약계층 가구와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열무김치를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등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동운 동곡 농협조합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나눔 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동곡농협은 지역사회에 희망을 전달할 수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첨단국가산단, 디지털 기반 친환경 산업단지로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등
노후화된 산단 대개조 진행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광주첨단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 3년차를 맞아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5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은 노후된 산업단지를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화, 친환경화해 경쟁력 있고 환경친화적인 제조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9년도 창원과 반월시화 산단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 15개 산업단지에서 추진 중이다. 광주에서는 광주첨단산단과 하남산단, 평동산단, 빛그린산단이 '대개조 산단'으로 지정됐고, 대개조 거점산단인 첨단산단에 대해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광주첨단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은 산업단지와 기업 및 근로자를 위한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과 산단 에너지 효율화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디지털 인프라 확충 사업 분야는 입주기업과 근로자의 안전·편의 등을 위한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운영사업이 있다.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2021~2023년)은 산단 노후 인프라를 개선·확충하는 사업으로, 현재 산단공 광주지역본부 6층에 통합관제실을 구축하고 24시간 운영 중이다. 재난안전 분야 중 수해방지 기능에 초점을 맞춰 IoT 기반 침수예측 시스템을 산단 전역에 설치, 침수상황 사전 예측 및 입주기업 전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사업(2022~2024년)은 첨단산단과 평동산단을 중심으로, 산단 입주기업의 전반적인 물류업무를 디지털화하기 위한 물류 운영·공유·관제 온라인 플랫폼을 연말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창고관리, 주문관리, 재고관리 등 소규모 기업의 물류 업무 효율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산단 내 소규모 제조·생활물류 등 공동보관·포장·배송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물류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산단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분야 사업으로는 '산단형 지능분산에너지 기업공동 연구활용센터 구축사업'(2022~2024년)이 있고, 올해에는 '산단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2023~2025년)도 신규 추진 예정에 있다.

황상현 본부장은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이 3년차에 접어든 만큼, 입주기업과 근로자들이 산업단지의 디지털·저탄소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성과를 창출해 나가는데 집중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사업을 지속 확대해 산단의 디지털·저탄소화 가속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광주일보-한국산업단지공단 공동기획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청년 창업자에 AI시제품 제작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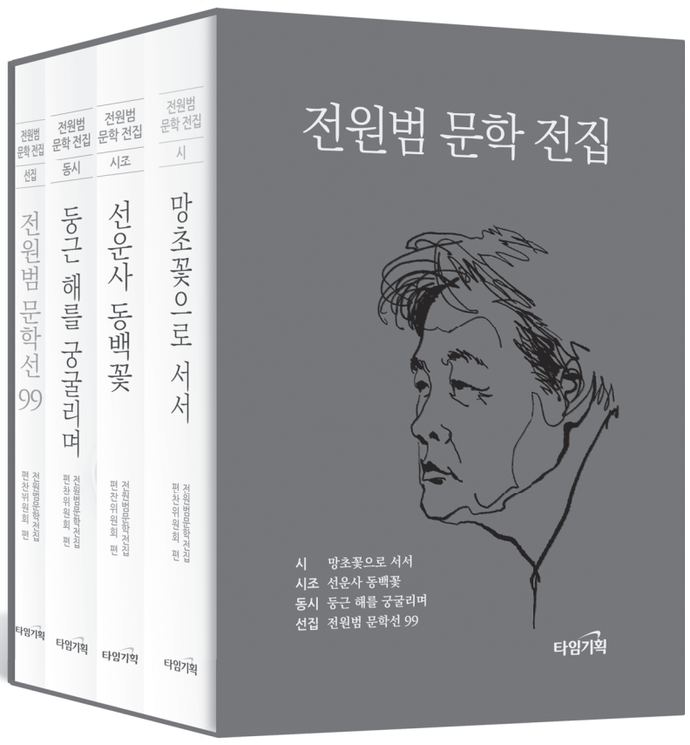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ICT·SW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호남지역 예비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청년 창업 지원 AI 시제품 제작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호남권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사업화하고자 하는 AI 시제품 개발 계획의 우수성, 기술 차별화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심사해 총 3개 팀에 각 3000만원을 지원한다

모집기간은 16일부터 오는 7월 5일 오후 4시까지이며, 세부 내용 및 신청 서식은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gicon.or.kr)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멀고 먼 옛날의 사람들은 완행열차로 떠나갔는데



전원범 문학 인생 60년 기념
전원범 문학 전집(시·시조·동시·선집) 출간

인간의 영혼이 만들어 내는 숭고한 정신과 삶의 역사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깊은 서정 속에서 펼쳐 보이는 전원범의 시는 시의 미적 형식을 넘어선 자리에서 인간과 삶과 자연의 아우라를 정리하는 통찰을 제공한다. —오윤호(문학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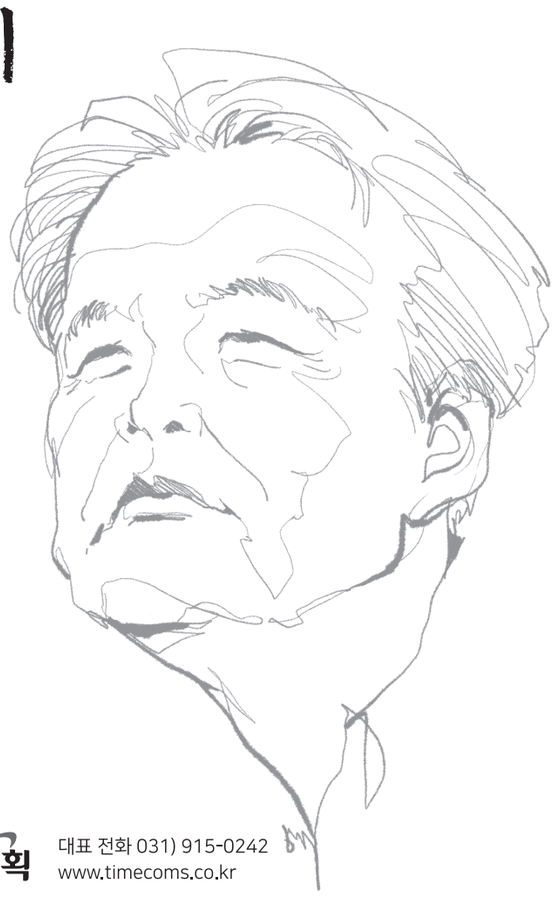
전원범의 시조가 보여 주는 주된 정조는 그리움이며, 쓸쓸하면서 맑은 정신 지향은 번잡한 우리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휴식처를 마련하여 준다. —염창권(시인, 광주교대 교수)

전원범 동시 세계의 축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해와 하늘과 꽃'이다. 그는 이를 통해 밝고 맑고 아름다운 동심의 세계를 표현한다. —이준관(시인, 아동문학가)

전원범 문학 전집 세트 총 4권, 100,000원

『망초꽃으로 서서』(시 전집) 『둥근 해를 궁굴리며』(동시 전집)
『선운사 동백꽃』(시조 전집) 『전원범 문학선 99』(작품 선집)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 판매 중



타임기획 대표 전화 031) 915-0242 www.timecoms.co.kr